

꽃심을 지닌 땅 전주

II 문화유산편

전주역사박물관 엮음



전주시립완산도서관



EM298732

하림

✓ 전주학총서 36

꽃심을 지닌 땅, 전주

II. 문화유산 편

인쇄 | 2016년 08월 20일

발행 | 2016년 08월 25일

엮은이 | 전주역사박물관

펴낸곳 | 흐름출판사

펴낸이 | 한명수

책임편집 | 이향란 박미란

디자인 | 김현수 이선정

등록 | 2002년 5월 17일 제466호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59

전화 | 063-287-1231

전송 | 063-287-1232

홈페이지 | www.heureum.com

이메일 | hr7179@hanmail.net

© 2016, 전주역사박물관

ISBN 979-11-5522-117-4 94900

978-89-93003-88-8 (세트)

값 20,000원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제1편 | 역사유적

- 1장_ 중바위 견훤성에 서린 후백제의 꿈 ... 14
- 2장_ 조선왕조를 싹틔운 전주 ... 24
- 3장_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입성 길과 전투지 ... 48
- 4장_ 일제강점기 억압과 저항 ... 60



제2편 | 도시유적

- 1장_ 황방산 자락 고고유적 ... 74
- 2장_ 호남제일성 전주의 도시 구조 ... 88
- 3장_ 남고산성에서 전주를 보다 ... 101
- 4장_ 전주 한옥마을을 거닐다 ... 116
- 5장_ 박다옥과 근대 문화유산 ... 129



제3편 | 문화유적

- 1장_ 완판본과 전주의 출판문화 ... 142
- 2장_ 전주 한지와 부채 ... 154
- 3장_ 전주 소리길 ... 166
- 4장_ 전주 서화의 맥 ... 177



제4편 | 교육유적

1장_ 전주향교와 교육 ... 190

2장_ 화산서원과 전주의 서원 ... 201



제5편 | 종교유적

1장_ 전주에 뿌려진 천주교인의 성혈 ... 210

2장_ 전주에서 만개한 기독교 ... 220

3장_ 경복사와 불교유적 ... 232



제6편 | 지리유적

1장_ 전주천을 따라 흐른 전주인의 삶 ... 246

2장_ 덕진연못과 비보풍수 ... 261

3장_ 전주 옛길 ... 268



개요

전주에 근대건축이 들어선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이입과 일제의 침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을사조약 이후 전주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처음에 전주부성의 서문 밖인 지금의 다가동 근처 전주천변에 거주하였다. 전주에 처음으로 들어온 일본인은 야마구치현(山口縣) 사람인 이노우에쇼다로(井上正太郎)와 모리나가신소(守永新三)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서문 밖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잡화상, 매약상(賣藥商)이 주류를 이루었고 의사, 대금업자 등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잡화상은 사탕을 단것 중의 가장 으뜸이라 하여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나중에는 한국 상인들도 사탕을 많이 취급하였다고 한다. (『전주부사』 제2편 통감부시대의 전주부, 1943)

일본이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하여 양곡 수송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군가도를 개설하면서(1907) 전주부성의 서쪽 부분이 강제 철거되었으며 남문을 제외한 동문 주변도 철거되어(1911) 전주부성의 자취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성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성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서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다가동과 중앙동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박다옥을 비롯한 근대건축이 도입되었다. 또한 전주부성이 훼손된 다음부터 1934년까지 3차에 걸친 시구 개정(市區改正)을 하면서 전주는 격자형의 도시가 되었으며 서문 일대로 진출한 일본인들이 전주 시내 최대의 상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

상은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전주 한옥마을 홈페이지 참조)

전주의 건축문화는 중화산동 일대에 엠마오사랑병원을 비롯한 신흥학교,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등과 같은 기독교 건축과 선교사 거주지가, 다가동과 중앙동에는 일본인들의 주거지와 상업지가 형성되었으며, 다가동 일부 지역에는 중국인들에 의한 근대건축도 지어졌다. 한옥마을에도 당시 일본인들의 주거용 건물이나 관사 등이 건축되면서 일본식 주거 건축이 도입되었다.

전주의 근대건축을 보면 교육시설로는 전주신흥학교, 풍남초등학교 등이 있고 종교시설로는 전동성당, 전동성당 사제관, 업무시설로는 구 전라북도청사, 박다옥, 구 중국인 포목상점, 구 조선금융조합 등이 있으며 의료시설로는 엠마오사랑병원, 산업시설로는 청웅제지, 주거시설로는 구 한국은행 관사(현 기전대 생활관), 학인당, 남장로교 선교사 사택, 잠우회관 등이 있다.

박다옥 博多屋 | 등록문화재 제173호

중앙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 전주 시내에서 상권이 발달했던 중심 변화가이다. 이 건물은 1929년에 건축되었는데 전주에 세워진 최초의 대형 일식집 건물이다. 본래 “히다가야(博多)” 계열의 식당으로 처음에는 호텔, 목욕탕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에서 일본인들이 우동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지상 3층, 전체 연면적은 609㎡이다. 건축물대장에는 지하 1층이 있다고 하나 현재는 지하실이 없다.

이 건물은 교차로의 코너 부분에 도로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 방형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모서리 부분만 원형으로 처리하였다. 출입구는 남북 도로를 따라 중앙으로부터 약간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입면은 전체적으로 외부를 인조석으로 마감하면서 르네상스 양식¹⁾을 따르

1 르네상스(renaissance) 양식 : 15~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행한 건축양식으로



전주부 대정정통 박다옥 건물(좌측) | 일제강점기 | 전주역사박물관 소장 사진엽서

고 있다. 그러면서 주출입구 부분에는 변화를 주어 외벽은 타일과 몰탈마감을 사용하였다. 2층 창문의 상부는 아케이드 양식²으로 처리하고, 3층 상부는 페디먼트 양식³으로 하면서 꽃 문양을 조각하였다. 페디먼트 하부에는 코니스 문양⁴이 둘러져 있다.

이 건물에는 각종 장식을 해 놓았는데 계단 상부에는 사무실 로고를 중앙에 양각하고 주변에는 식물 문양을 조각하였다. 기둥에는 여러 문양을 음각하였는데 동서 도로에 면한 우측 모서리 기둥 주두는 코린티안 주두⁵에 사용

석재,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하여 수평을 강조하였다. 부분적인 건축양식으로는 수평창, 아케이드, 돔(dome) 등의 장식을 사용하였다.

- 2 아케이드(arcade) 양식 : 열을 지어 서 있는 기둥 상부를 아치로 연결한 양식.
- 3 페디먼트(pediment) 양식 :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건축양식인데 지붕 측면이나 창, 출입구 상부에 삼각형 모양으로 한 부분, 박공이라고도 한다.
- 4 코니스(cornice) : 박공 페디먼트 하부에 수평으로 둘러진 띠 장식.
- 5 그리스, 로마시대 때 사용된 기둥 주두양식으로 도릭(Doric), 이오닉(Ionic), 코린티안(Corinthian) 양식의 하나로 주두에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된 아칸서스 잎의 문양을 조각하였다.

이 건물은 이후 삼풍산업, 한국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 새마을금고 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4(중앙동 2가)

중국인 포목상점 中國人布木商店 | 등록문화재 제174호

이 건물은 전주부성이 헐리기 전 서문 밖의 중국인 촌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합자로 소점포 13개를 통합하여 비단집으로 1920년에 개설하였다. 건축은 전동성당 건축을 담당했던 중국인들이 중국 상하이의 전통식 비단집 형태를 따라서 건축하였다. 해방 이후 포목상을 폐쇄하면서 내부 개조가 이루어지고 주변에도 다른 건물이 건축되었다.

평면은 본래 一자형 평면이었고 뒤에 방이 위치한 형태였다고 한다. 후에



중국인 포목상점 | 1920년

전주 8미·전주 10미

1. 파라시(八月柿, 감)

전주의 감은 맛이 좋기로 옛날부터 유명하다. 특히 물이 많고, 달며, 씨가 별로 없어 먹기에 좋고, 먹고 난 다음 입맛이 개운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파라시는 음력 8월에 홍시가 되어 먹을 수 있는 감으로 옛날부터 전주에서 나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서낭골(성황사와 기린봉 밑)과 산성골(남고산 주변), 내성골(지금의 완주 대성동)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맛이 있었다고 한다.

2. 열무

전주 동쪽 기린봉 기슭에서 생산되는 것과 효간재(구이 방면)에서 나는 것을 손꼽는다. 짙은 웅달 속에서 자란 것일수록 사각사각 연한 맛이 훌륭하다. 어린 무는 원래 7~8월 한더위에 김치를 담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밑동도 먹지만 주로 푸릇푸릇한 잎의 맛이 좋다.

3. 녹두묵(황포묵)

오목대에서 흘러나오는 녹두포(綠豆泡) 샘물을 이용하여 만든 녹두묵은 천하진미로 옛날부터 전국에 알려진 기호식품이다. 이 녹두묵은 치자로 물을 들이면 색이 노랗게 되므로 황포묵이라 했으며 물을 들이지 않으면 청포묵이라고도 불렀다. 녹두묵은 가늘게 채를 쳐서 무침을 해 먹었으며 전주에서는 비빔밥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로 쓰였다. 자만동(자만동·교동) 묵샘골의 녹두묵을 부성의 자랑으로 꼽는다.

4. 서초(西草, 담배)

담배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원래 우리나라 재래종이 아니고 조선조때 서양

에서 들어온 풀이라 하여 서초라고 부른 것이다. 전주의 담배 맛은 예부터 좋았는데, 완주군 소양면 대홍골과 상관면 마치골에서 나오는 담배 맛은 평안도 성천, 충청도 충주·증평·진천 담배 맛과 함께 알아주었다고 한다.

5. 애호박

토양의 탓인지 신평리 동천의 애호박 맛을 일품으로 꼽았다. 이 호박은 한 포기 줄기에서 호박이 20여 개씩 열렸으며 애호박은 여름 반찬으로 인기를 얻었다. 초가을에 딴 호박은 썰어서 말린 후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였다. 특히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전에 따서 찌면 그 맛이 달고 영양가도 높아 식용으로 즐겨 먹었으며 호박고지로 말려서 떡을 해 먹기도 했다.

6. 모래무지

모래무지는 모래 속을 파헤치면서 생활하는 민물고기로 삼례 한내, 전주 남천, 서천, 남고천 등에서 많이 잡혔다. 맑게 흐르는 물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깨끗하고 맛이 담백하여 모래무지 지짐이나 탕으로 끓여 먹는 요리가 미식가들의 미각을 돋구어 왔다. 모래무지 한벽당 아래 천변의 오모加里탕이 유명하여 계절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7. 게

민물에서 나는 게는 한내에서 잡히는 게가 맛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게찜, 게장조림은 부성 아낙네들의 갖은 양념 속 조화미(調和味)를 갖춘 미각이라 했다. “한내 게 다리 한쪽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은 거뜬하다.”고 할 정도로 게의 성가가 높아 진상품으로도 만들어졌다.

8. 무

예부터 삼례와 봉동 부근에서 나는 무가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황토밭에

서 나는 무슨 돌맹이처럼 단단하고 둥글면서 큼직하여 인기를 끌었다. 옛날 전주부성의 사불여설 가운데 “배 맛이 무우 맛보다 못하다.”고 할 정도로 무우의 맛은 가히 전국적이었다고 한다.

9. 콩나물*

옛날 전주성 사람들이 하루 세 차례씩 음식상에 올려 먹었던 반찬이다. 사정골 ‘노내기쌈’물로 자만동 ‘묵쌈’물로 기른 콩나물을 일품으로 꼽았다. 콩나물은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 해장국밥의 주재료로 빠질 수 없는 식품이며 콩나물 자체의 맛은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금으로 간을 맞춰 끓이면 고슬기도 하고 부드러우면서 나긋나긋한 맛이 한층 감칠맛을 주는 것이다. 전주 사람들이 콩나물을 많이 먹는 것은 기후와 풍토 탓이라고도 한다.

10. 미나리*

옛날 전주시 화산동 고개를 넘으면 물썬 미나리의 향취가 몸에 밴다고 하였다. 이 일대는 유래가 깊은 미나리 방죽이다. 전주 미나리는 줄기가 연하고 겨우내 물속에서 자라 그 맛이 또한 일품이다. 미나리 재배가 유명했던 화산동 일대는 현재 아파트 지역으로 변하였고 현재 미나리는 더 외곽으로 밀려나 재배되고 있으며 전주 변두리, 삼례 등에서 상당량이 생산되고 있다.

*전주 8미에 콩나물, 미나리를 더해 전주 10미라고 한다.

전주 10미가 언제 누구에 의해 붙여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가람 이병기가 1950년대 초 전주 양사재(養士齋)에서 창작한 <근음 3수(近吟三首)> 중 ‘열무’에서 8미가 소개되었다. “선왕골 파라시는 아직도 아니 붉고 / 기린봉 열무 팔미의 하나라지 / 배급 탄 안남미(安南米) 밥도 이 맛으로 먹히네” 가람은 전주 8미를 기린봉 열무, 신평리 호박, 한내 무, 상관 계(한내 계), 전주 남천 모자(모래무지), 선왕골 파라시, 대흥리 서초, 오목대 황포묵으로 뽑았다.